

요즘 남자들 영악해졌다.

대시 한번 할 때도 거절당했을 때 잃을게 뭘가부터 계산한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은 고전 중의 고전이 된 지 오래다.

지난 11년간 도도한 원조 ‘알파걸(엘리트 집단의 여성)’ 타이틀을 쥐고 있었던 화려한 스펙의 여자 후배가 최근 술판에서 “요즘 같으면 열 번이 아니라 세 번만 찍어도 넘어가 주겠다”고 하소연하는 걸 보고 이런 생각은 더 확고해졌다.

불타는 금요일 홍대 클럽에서 예거밤(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칵테일)이나 훌쩍(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어떻게 하면 상대를 한 번에 찍어 넘길지부터 생각하는 게 요즘 연애 트렌드다.

여자들도 가벼움으로 승부한다. 최근 쏟아졌던 ‘쿨걸’ 코드도 따지고 보면 이런 맥락이다. 진지한 연애는 진부하다는 얘기다. 연애 시장에서 어느덧 묵직한 야성은 퇴출됐다.

연애도 펀드도 부실하면 쿨하게 떠나자



김정환
매일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그런데 알파걸들 속 썩이는 게 남자 말고 또 있다. 사회 초년병 시절 청운의 꿈을 품고 진득하게 물어뿔던 펀드가 바로 그것이다. 어디 사회 초년병뿐이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창구 직원 말에 혹해 정기예금 깨고 과감히 펀드로 갈아탔던 아주머니들 속도 알파걸 못지 않게 까맣게 타들어 간다. 죽 한 사발 못 얻어먹은 것처럼 어찌 수익률이 비실비실하다.

최근 펀드 시장에서 대량으로 뭉칫돈이 빠지고 있는 이유다. 부실한 수익률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대거 돈을 빼며 지난 1년간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만 8조 6000억 원 어치 자금이 이탈했다.

여기서 고민이 시작된다. 분위기에 따라 펀드를 깨고 나와야 하나. 아니면 진득하게 붙어 있어야 하나. 답은 간단하다. 펀드 건강 진단서를 떼어보고 아니올시다 싶으면 쿨하게 깨고 나오면 된다. 묵직한 야성을 보여주지 않는 펀드에 웃고름 적시며 붙어 있을 필요가 없다.

환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하 다섯 가지 원칙부터 따지자. 첫째, 펀드에 추가적인 기회를 줄지 여부다. 환매에도 물이 있다. 모두 돈 빼는 거 같다고 벌써부터 환매를

고려한다면 애초에 적립식 투자가 기본인 펀드에 적합한 투자자가 아니다. 손실을 회복했고 향후 펀드 투자를 재개할 생각이 있다면 한꺼번에 환매하지 말고 증시 상승에 발맞춰 일부만 환매하는 게 좋다. 자기 돈이 들어가야 관심 있게 계속 시장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손실을 입은 경우도 마찬가지. 한꺼번에 환매해 100% 손실을 확정짓기 보다는 분할 환매로 향후 기회를 살려두는 게 현명하다.

둘째, 건강에 이상 징후가 생긴 펀드라면 미련 없이 환매하자. 수익률이 급격히 변한 펀드, 혹은 뭉치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펀드가 1차 레드카드 감이다. 펀드 수익률과 설정액(펀드에 들어온 자금)은 펀드닥터 사이트(www.funddoctor.c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셋째, 펀드매니저가 자주 바뀐 펀드도 위험하다. 매니저 변경이 잦은 펀드는 펀드가 담은 종목도 자주 교체되면서 수익률이 출렁일 위험 역시 커진다. 매니저 변경은 금융투자협회(<http://dis.kofia.or.kr>)에서 펀드 운용보고서를 다운 받은 후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넷째, 환매 비용도 따져보자. 통상 펀드는 가입할 때 선취 수수료를 떼지만 매년 지불하는 보수가 낮은 A 클래스와 수수료가 없지만 연 보수가 높은 C 클래스로 나뉜다. (펀드 이름 끝에 붙어있는 알파벳이 바로 펀드 클래스다.)

A 클래스의 경우 가입한 지 1년 안에 환매한다면 수수료만큼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총비용(수수료+보수)을 놓고 보면 A 클래스와 C 클래스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 A클래스가 연보수가 낮음에도 C 클래스와 총 비용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처음 가입할 때 내는 A 클래스 초기 비용이 크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환매 수수료 부과 기간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통상 펀드는 가입 후 3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펀드가 벌어들인 이익금의 절반가량을 환매 수수료로 떼어간다. 개중에는 수수료 기간이 1년 이상 되는 펀드도 있기 때문에 막대한 수수료를 물지 않으려면 환매 수수료 기간을 확인하는 건 필수다.

펀드가 연애보다 나은 점은 적어도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펀드가 하루하루 꼼꼼히 남긴 기록을 살펴본다면 연애만큼 쿨한 재테크도 가능하다. 물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귀동냥만으로 자기 돈을 남에게 맡기지 않는 것이다. 